

동성애와 신학

교회사에서 바라보는 동성애



1. 들어가는 말 ❁

동성애는 자기 나름의 신학과 그것에 근거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국가와 짝을 이루어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를 향해 체계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죄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다.

본고는 동성애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

는지를 연구한다. 교회는 어떤 시대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동성애를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시대적 범주는 사도들의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시대와 근현대에 까지 이를 것이다. 기독교회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두되어 왔던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대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안인섭 교수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네덜란드 캄펜신학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아시아신학연맹(ATA) 이사이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2. 초대교회와 동성애 ❁

❶ 사도시대와 동성애 문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동성애를 도덕이 아니라 문화적 잣대로 보았다. 동성애는 남성다움과 관련 있었다. 국가적으로 남성매춘을 허용했고 동성애는 능동적인 섹스 파트너인 연상자와 수동적인 파트너인 연소자 사이의 관계로 인정했다. 심지어 이성애 보다 동성애를 더 고차원의 것으로 보기까지 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도전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했다. 바울은 고대 시대의 이교적 문화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27절, 고린도전서 6장 9~11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등에서 분명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❷ 교부시대의 동성애 문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150~ c.215)와 서방의 제롬(Jerome: 347~420) 등과 같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도 동성애를 반대했다. 동방 교부의 대표자인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c.349-407)은 가장 명확하게 동성애를 반대했던 교부로 유명하다. 성행위를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대했다.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불의한 자(고전 6:9)를 해석하면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정상적인

성행위의 즐거움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고 동성애를 사탄적 범죄라고 반대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동성애는 교회법에 근거해서 죄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로마법을 집대성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Justinianus I: 527-565)는 기독교 정신을 로마법에 녹여내어서 동성애를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면서 국법으로 엄격하게 금했다.

❸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이 바라보는 동성애

서방 교부의 대표자이자 그 이후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 축을 구성했던 어거스틴은 성을 출산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했고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연에 역행하는 죄 즉 소돔에서 벌어진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 those offences which be contrary to nature are every where and at all times to be held in detestation and punished: such were those of the Sodomites ... 고백록 3.8.15)면서 명확하게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간주했다. 이와 같은 동성애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대 입장은 이후 기독교 전통의 표준이 되었다.

3. 중세교회와 동성애

중세 초기에 동성애는 주로 젊은 귀족층, 독신이었던 성직자 중 일부, 그리고 파리의 대학생들 중에서 발견되었다. 중세교회 역시 동성애를 자연에 거스르고 창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반대해 왔다. 특히 중세 수도원 규율의 모범인 “**베네딕트 수도회**”(Benedictine Monastery, 529년 창설)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나 수녀들이 한 침대에서 잘 수 없으며 수도원 숙소의 등불을 밤새 켜 두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동성애를 금했다. 그 이후 동성애가 확산되어 가자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을 명시하기도 했다.

중세교회가 교회의 공적인 입장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던 것은 제3차 라테란공의회(Third Council of the Lateran: 1179)였다. 성직자 중에서 자연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환속시키거나 수도원에 칩거시켜서 고행하도록 했다. 성직자가 아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파문하고 성도의 교제에서 추방시켰다.

중세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판단은 역시 중세 신학을 집대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이자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표준이 되는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출산을 목적하지 않는 동성애를 반대했으며 어거스틴의 반동성애 관점을 그대로 수용했다. 중세 말의

단테 또한 동성애자를 자연법 위반자로 간주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지옥의 7번째 층에 위치시켰다.

그러나 중세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페스트의 창궐과 지속적인 전쟁으로 도덕적 붕괴가 진행되었다. 급격한 도시의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성적인 문란함이 확산되었다. 그 영향으로 독신주의였던 가톨릭의 성직자들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점차 동성애는 성직자, 귀족, 이발사, 심부름꾼, 뱃사공, 하인, 어른, 소년 등에까지 도시 전반에 확산되었다. 결국 중세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할 때 동성애의 범람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4. 종교개혁 시대와 동성애

1) 신학적 발전

동성애에 대해서 중세교회가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가진 것은 분명하기는 하지만, 그 신학적 기반이 강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성을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성 자체에 대해서 억압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시대가 되어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의 정신과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을 접하고 읽을 기회가 많아졌다. 이때부터 성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해석이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 가장 최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결혼해서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에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 종족을 번식하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보다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간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시대의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언약적 거룩함과 가정의 소중함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2)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바라보는 동성애

종교개혁 신학을 총 집대성한 것은 프랑스 출신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존 칼빈이다. 칼빈은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기 20:13을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금하는 출애굽기 22:19와 나란히 설명하면서 동성애를 타당한 정숙함 자체에 위배되는 금지된 죄로 설명한다.

칼빈은 소돔의 죄를 설명하는 창세기 19장 4절 주석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the most abominable crime)를 그토록 쉽사리 서슴지 않고 지으려고 공모했으므로 그들이 모든 악한 이들에 얼마나 악마적인 혼연일체가 되어 행동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

서 동성애를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칼빈에게 동성애는 “이런 극단적인 범죄로 나갔던 악의 시작(what beginnings of evil they had proceeded to this extreme turpitude)”이다.

칼빈은 또한 로마서 1:26~27을 해석할 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since they reversed the whole order of nature) 자신들을 짐승과 같은 천한 정욕에 맡겨버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they not only abandoned themselves to beastly lusts, but became degraded beyond the beasts). 이것을 볼 때 칼빈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사실상 짐승보다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어조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종교개혁시대의 신학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개혁자인 칼빈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로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근현대 시대 교회와 동성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계몽주의로부터 근원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런 조류에 따라 국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급격하게 열리게 되었다.

20세기 초가 되면서 동성애는 의학적인 현상

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동성애를 일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이 확산되었으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동성애 부부가 유럽과 미국의 국가로부터 합법화되는 길로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보수적인 기독교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1 암스테르담 선언(The Amsterdam Declaration, 2000)에서 바라보는 동성애

2000년에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명의 선교 전략가 교회지도자 신학자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여서 복음주의적 헌신의 표현을 담은 “암스테르담 선언(The Amsterdam Declaration)”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12조에서 복음전도자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성과 가정에 대한 거룩한 삶을 촉구한 바 있다. 결국 결혼과 성에 대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동성애는 여전히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 2010)에서 바라보는 동성애

전 세계 198개국에서 온 4,2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2010년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모여 개최했던 “로잔회의(Lausanne Congress)”는 종교다원주의의 압력으로부터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때 동성애 문제도

다루었는데 동성애는 다른 형태의 죄와 달리 자신의 커뮤니티와 신학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동성애는 저변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Independence from God)이 깔려있다.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에서 선언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며 범죄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결혼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사이의 헌신된 신실한 관계로 성립된다는 것이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설계이다. 결혼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가족과 구별된 새로운 사회적 개체 안에서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으로 표현되는 성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서약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는” 식의 사랑 충만한 성적 결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인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반영한다.”(케이프타운 서약 2부 E항 2조)

6. 나오는 글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관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회사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성경의 권위와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정통적인 교회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하고 시종일관하게 반대해 왔다.

둘째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때도 성경해석과 신학의 문제가 반영되었다. 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중세와 달리 종교개혁과 근현대에는 성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셋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가 오고,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확산될 때 동성애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함께 발전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동성애 문제는 변화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세속화의 흐름과 동성애 인정은 서로 정비례

하고 있었지만, 정통 교회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창조신앙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성간의 결혼관과 가정의 의미를 확고하게 가지고 동성애 문제의 도전에 대해서 성도와 신학을 보호해 왔다.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인권 침해나 평등권 파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게 해야 한다. 교회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가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서 성경적인 진리를 변경하여 동성애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토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